

광주시, '준3단계 거리두기'... 일상 멈추고 감염공포 확산

코로나19 감염 전방위 재확산, 만성 확산 인식에 불안 호소
9월10일까지 행정명령, 외출 자제 등 생활방식도 대폭 변화

광주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속출하면서 일상이 다시 멈춰 서고 있다. 시민들은 종교계 행사와 맞물려 촉발했던 초기 전염 양상을 기억하면서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첫 주말인 29일 광주 도심은 외출 자제 분위기가 역력했다.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는 소나기가 반복돼 한산하다 못해 을씨년스러웠다. 간혹 보이는 시민들도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주머니에서 휴대용 손소독제를 꺼내 손에 바르는 시민도 보였다.

의류·식품·휴대전화 판매점과 대형쇼핑몰·음식점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가까웠다. 문을 닫은 곳도 많았고,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카페에 있던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를 쓴 채 확진자 폭증을 우려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다중이용·문화·

체육시설 휴관과 맞물려 각종 공공시설 물도 이용이 금지됐다.

코로나 확산을 만성적 일상으로 인식했던 시민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은 올 초 수준으로 대외·대면 활동을 최소화했고, 장마 이후로 미룬 휴가 일정을 취소했다.

생활방식도 대폭 변화했다. 북구 용봉동 주민 A(29)씨는 집에서 마스크와 일회용 위생 장갑을 쓴다. 가족 4명이 식기를 따로 쓰고 뜨거운 물로 소독 중이다. A씨 가족 모두 업무상 많은 사람과 접촉해 세탁물도 따로 세탁한다.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않는다.

남구 봉선동 주민 B(44·여)씨도 위생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외출 전후 자녀들의 옷·신발·소지품과 택배 물품을 분무형 소독 제품으로 방역한다.

북구 매곡동에 사는 C(31)씨는 꾸준히 다니던 헬스장이 폐쇄돼 집에서 맨몸 운동만 하고 있다. 게임이 취미 생활인 D(28)씨는 PC방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고사양 컴퓨터가 있는 숙박업소에서 주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발령한 이후 첫 주말인 29일 오후 동구 충장로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을 보내기도 했다. 결혼식 연기 사례와 자영업자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시민들은 30일 "무증상자와 감염 경로

를 확인 할 수 없는 환자가 늘고 있어 불안하다"고 했다. "누구한테 언제 율을지 몰라 집 밖을 나서기가 걱정스럽다"면

서도 "방역 수칙 준수에 힘을 쏟겠다"고 입을 모았다.

기동취재본부

19개 시·군 확산 전남, n차·깜깜이 비상...요양시설까지

동부권서 청정지역까지 확산
순천시는 4차 감염까지 나와

전남에서 코로나19가 급속 확산, 19개 시·군으로 번졌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전남도내 코로나 19확진자는 139명으로 22개 시·군 중 고흥과 해남 강진을 제외하고 19개 시·군에서 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8월15일 연휴를 기점으로 재확산된 17일부터 이날까지 12일만에 95명

의 확진자가 나왔다.

12일간 순천 57명, 광양 13명, 진도 5명, 목포 3명, 곡성 3명, 화순 3명, 나주 1명, 담양 1명, 구례 1명, 무안 2명, 영광 2명, 장성 1명, 완도 2명, 신안 1명 등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27일부터 3일간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서울 무한그룹발 감염이 심각한 순천 등 동부권 중심이었던 것이 청정지역 장성과 완도,신안,구례 등지로 번지는 양상이다.

장성의 경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금까지 단 1 건의 감염사례가 없었던 요양

원에서 90대 여성(전남 13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할머니는 광주의 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던 중 지난 23일 서울에서 병문안차 내려온 딸(강서구 204번)과 병원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특별관리대상으로 이중, 삼중 감염차단에 나섰던 요양시설이라는 점에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목포는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개인택시 기사(전남 128번)가, 신안은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60대 목사(전남 122번)가 첫 감염 사례로 가족들의 감염이 잇

따랐다.

구례 첫 확진자 30대 남성(전남 134번)인 물리치료가사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사랑제일교회 자녀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순천의 온 80대 남성(전남 121번)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무한그룹 방문판매업체로 시작된 순천은 4차 감염까지 확산되는 등 n차 감염이 심각하다.

순천 지표환자인 70대 여성(50번)에서 시작돼 푸드코트, 피트니스센터로 이어지는 감염고리로 인해 이날까지 4차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확진판정을 순천지역 전남 132과 133번 확진자는 각각 8살 남아, 9살

여아로 2명 모두 해룡면에 거주하는 순천 전남 106번 확진자의 자녀다.

이들 남매는 청암피트니스 강사(전남 93번·2차)→전남 106번(3차)에 이어 4차 감염이 된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는 집단의 경우 6차 감염까지 가는 사례가 있다"면서 "순천은 감염고리안에 대부분 명단을 파악하고 있어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 역시 우려가 깊다.

최근 확진판정을 받은 목포 택시기사와 광양 40대, 화순 부부 등의 감염경로를 찾지 못해 정밀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정환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